소극적 수용력

소극적 수용력은 어설프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, 의문을 하나의 의문으로서 흥미롭게 바라보면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허공에 떠 있는 상태를 견뎌내는 힘이다. 그 앞에는 틀림없이 더욱 심오한 이해가 기다리고 있으리라 확신하며 그 상황을 끝까지 견디도록 힘을 내는 것이다.

<중략>

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뭐라도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.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견뎌내기만 하면 어떻게든 된다. 도망치지 않고, 그 자리에 남아 끝까지 지켜보는 것(stay and watch). 이는 그야말로 소극적 수용력과 빼닮은 정신이다.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닥쳐도 그 상황을 끝까지 견뎌내면 언젠가는 상황이 좋게 변할 것이다. 우리 인간의 뇌에는 뭐든지 희망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려는 편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.

하하키기 호세이의
<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> 중에서

하하키기 호세이
- 정신과 의사, 소설가
- 저서: 〈하얀 여름의 묘표〉, 〈세 번째 해협〉, 〈폐쇄병동〉, 〈도망〉, 〈파리 제국〉, 〈반딧불이의 항적〉 등